

202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

“함께하는 미래’ 주제로 한국 건축의 미래 설계”

The 2023 Rising Architects
of Korea Workshop



202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이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공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협회 의무가입 시행에 따라 신진건축사에게 필요한 협회 정책과 중·장기적 사업에 대하여 토론하고, 전국의 신진건축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하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소속 신진 건축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은 ▲신진건축의 세계화 ▲신진을 위한 민간 대가기준 정립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등이 조별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신진 건축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1조는 신진 건축의 미래를 위한 준비 방안을 세분화한 뒤 협회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 기준 정립’을 주제로 토론한 2조는 민간대가 기준 정립과 함께 건축사의 필수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3조는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설계공모와 입찰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글 조아라 기자 · 사진 정영호 기자



인사말을 전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질문에 답변하는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참석 회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김지한 담당이사



질문에 답변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신문재 담당이사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윤규섭 위원장



‘신진건축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김길영 위원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 기준 정립’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송해경 위원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위호진 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박원근 자문위원



상향옥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위원)가 '신진 건축의 세계화'를 주제로 1조가 토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가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주제로 3조가 토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오종수 자문위원



이재현 건축사(모루 건축사사무소)_인천광역시건축사회



김준섭 건축사(비티비 건축사사무소)_충청남도건축사회



신석희 건축사(써아 건축사사무소)_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